현대신학 강의

(CONTEMPORARY THEOLOGY)

Written by

Dr. Paul B. Jang

(Th.M, D.Min, Th.D)

2017

Orange County, California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Master & Doctoral Course Program
6203 Beach Blvd. Buena Park
Orange County, CA 90621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Address: 6203 Beach Blvd. Buena Park
Orange County, CA 90621, U.S.A.
Course Number: DMC 000: Contemporary Theology

Dr. Paul B. Jang (**Th.M, D.Min, Th.D)**

Course Description

In this semester, the Contemporary Theology has focused on the thought of the pre and post Nineteenth century centering on the Western World. Emphasis will be especially made on the thought of Karl Barth, Ludolf Bultmann and Dietrich Bonhoeffer, and we will survey the theological thoughts such as the theology of the Word (Karl Barth), the existential theology(Ludolf Bultmann), the social theology (Dietrich Bonhoeffer), and the theology of hope (Moltmann).

Course Outline

(1) The Theological Trend before Nineteenth Century in Europe
(2) The Theological Trend after Nineteenth Century in Europe
(3) The Theology of the Word by Karl Barth
(4) The Existential Theology by Ludolf Bultmann
(5) The Social Theology by Dietrich Bonhoeffer
(6) The Theology of Hope by Jürgen Moltmann

Reading Requirements

(1)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logy, A: Tracing Trends and Discerning Directions in Today's Theological Landscape (David L. Smith, 2001)
(2) On Christian Theology (Rowan Williams, 2000)
(3) Contemporary American Theologies I (Deane William Ferm, 1981)
(4) Contemporary American Theology II (Deane William Ferm, 1982)
(5) 현대신학 개설 (김의환 박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6)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Dorothee Solle 지음, 서광선 역, 1993)

Writing Requirements

(1) Write on the thought of Karl Barth centering around the theology of Word, or
(2) Write on the procedure of the work of Demythologization by Ludolf Bultmann.

현대신학 이해 (I)

(제1물결 신학: 유럽신학)

(EUROPEAN CONTEMPORARY THEOLOGY)

서 론 (INTRODUCTION)

인류의 역사의 물결을 조명해보면, 뚜렷한 물마루들(Crests of Waves)을 이루며 물결쳐 온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전반에 걸쳐 각 분야로 규칙적인 패턴(pattern)에 의하여 물결 쳐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는 각 분야에 걸쳐 제1물결, 제2물결을 거쳐 제3물결 시대에 와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얼마 전만 해도 제3물결과 제4물결 사이의 전환점(turning point)에 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4물결 세계로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정치의 물결 = ① 전제정치→ ② 대립정치→ ③ 협력정치→ ④ 통합정치
(2) 경제의 물결 = ① 독점경제→ ② 경쟁경제→ ③ 협력경제→ ④ 통합경제
(3) 종교의 물결 = ① 권위종교→ ② 대립종교→ ③ 협력종교→ ④ 통합종교

(THE PARADIGM OF THE CHRISTIANITY)

(1) 기독교 신학의 물결 (유럽신학, 미국신학, 제3세계 신학, 다원주의신학)
(2) 기독교 선교의 물결 (유럽선교, 미주선교, 제3세계 선교, 제4세계 선교)
(3) 교회성장의 물결 (성령운동, 은사운동, 복음주의 성령운동, 선교운동)

◈ 현대신학의 조류

현대신학(Contemporary theology)은 주로 세 개의 조류(wave), 즉 유럽신학과 미국신학,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the third world)의 신학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신학사상(神學思想)의 발단(發端)은 먼저 구미(歐美)에서 시작되어서 제3세계로 유입되는 패턴(pattern)을 취해왔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3세계에서 그들의 정치적(政治的), 사회적 (社會的), 경제적(經濟的), 민족적(民族的) 배경(背境)으로 발생(發生)한 신학(神學) 들도 만만치 않게 신학화(神學化)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주의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 흑인신학(black theology), 여성신학(feminist theology),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민중신학(minjung theology), 일본의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theology of God's suffering)등 제각각의 특수한 배경(背景)을 바탕으로 일어난 신학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신학은 주로 종교개혁(Reformation) 이후, 자연주의(deism), 합리주의(rationalism), 역사주의(historicism), 실존주의(existentialism) 등의 여과(filtration)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liberal theology)을 낳게 되어 철학적 신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미국 신학은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존재의 철학적 신학(philosophical theology of existence)을 마감하면서,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chenbusch)와 하비 콕스(Harvey Cox) 등의 세속화 신학(secularization theology)과 매우 극단 신학인 알티져(Thomas Altizer)의 사신신학(the death of God theology)이 유행되는 한편,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 흑인신학(black theology), 여성신학(feminist theology) 등이 출현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신학으로, 한국의 민중 신학(minjung theology),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과 이색적(異色的)으로 일본의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the theology of God's Suffering)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현대신학(contemporary theology)의 간단한 역사적 배경과 제1부로 유럽 신학을 다루기로 하고, 제2부 미국신학과 제3부 제3세계 신학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현대신학을 근원에서부터 탐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대신학의 출발점을 19세기 칼 바르트(Karl Barth) 신학으로 보지만, 현대신학을 좀 더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대신학을 배태하게 한 사상들의 근원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그 사상적 근원을 칸트(Emmanuel Kant)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체계적으로 탐사함으로써 현대신학의 사상적 뿌리에서부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I. 현대신학의 역사적 배경

1. 19세기 신학의 배경

중세시대에 이르러 스콜라신학(scholarism)은 가까이는 문예부흥(renaissance)과 멀게는 간접적으로 종교개혁(Reformation)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스콜라 신학은 학문적으로는 신앙(信仰/敎理)과 이성(理性)의 조화를 이룬 신학을 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치적으로는 교황의 전체주의 통치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스콜라 신학의 배경으로 해서 합리주의 (rationalism)와 신비주의(mysticism)가 발생하여 전자(스콜라 신학)는 문예 부흥에, 후자(신비주의)는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예부흥은 인문주의(humanism)의 꽃을 피웠고,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후, 18세기에 들어와서 인본주의적 합리주의(humanistic rationalism)와 경건주의(pietism)가 강력하게 대두하게 되어 교회 사상사(敎會 思想史)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좌경 현대신학인, 자유주의 신학(Liberal theology)을 낳게 했다.

(1) 경건주의 (敬虔主義, Pietism)

경건주의 운동(pietistic movement)은 지나친 교조적 신학(敎條的 神學)에 집착해서 교리적 논쟁(敎理論爭)에 빠져들고 있었던 종교개혁 신학(Reformed theology)의 반동(反動)으로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이며, 신앙의 생활화 운동이다.

1)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

① 스펜너 (Philip Jacob Spener, 1633-1705)

(1) 라바디(Jean de Labadie, 예수회 탈퇴, 제네바의 세례요한이라는 별명을 얻음)의 영향으로, 후에 교회 안의 小敎會(소그룹, small church/group) 운동을 시작하였다.

(2) 존 안드트(John Arndt)의 저서 “참 기독교”(Wahre Christenthum)를 읽고 감명 받아, 교리의 정통성(正統性)에 이어 생활의 경건성(敬虔性)을 주장하였다.

(3) 스펜너의 경건주의 운동은 18세기 초엽, 할레(Halle) 대학을 중심으로 독일 전역에 파급되어 영적인 신앙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4) 벵겔(J.A. Bengel)과 같은 신학자들을 통하여 독일 강단에 침투해서, 경건주의 운동가인 진센돌프(G. Zinzendorf)의 모라비안(Morabian)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5) 주관적 경건주의(主觀的 敬虔主義, subjective pietism)로 흐른 슈라이엘마허(Schleiremacher)에게도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6) 그의 저서 **"경건의 열망"** (Pia Desideria)

1) 소그룹의 성경연구의 모임 (초대교회 회복운동)
2) 신자들의 영적 제사장 역할 (평신도 운동)
3)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 성격 (경건생활의 실천)
4) 종교적 논쟁의 무익성 지적 (경건성 없는 교리의 무익)
5) 신학교육의 경건주의 개혁 (경건생활 무시된 교육개혁)
6) 강단(설교)의 개혁 (박식주의 설교에서 단순한 경건설교로)

② **프랑케 (August Herman Franke, 1663-1727)**

(1) 요 20:31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스펜너(Spener)를 만나서 헌신을 다짐하였다.

(2) 라이프찌히대학 출신으로 동 대학에서 강의하였으나, 성서집회를 금지 당했다.

(3) 스펜너 후임으로 할레대학 신학부에 위임되었으며, 경건운동을 전개하였다.

(4) 사회사업, 고아원을 경영하였다 (고아 2,200명과 교사 170명).

(5) 성서보급을 위해 인쇄소, 출판사를 설립하였다.

2)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 (교회사적 의의)

(1) 영국의 웨슬레의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

약간의 성격차이는 있지만, 모라비안(Morabian)을 통하여 영국의 웨슬레 복음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웨슬레 복음운동은 독일 교조주의에 맞선 모라비안의 경건운동과 달리, 영국의 합리주의에 맞선 경건운동)

(2) 미국의 대 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에 영향

18세기에 일어났던 미 대륙의 대 각성운동은 휫필드(Whitfield)와 웨슬레(Wesley)의 복음주의 운동과 연관되어, 미국 개척자인 청교도적인 전통에 근거한 독립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지만 간접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미국 교회의 대각성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신학과 경건성이 중출한 인물이다. 그의 "종교의 열정"(Religious Affection)의 개념은 19세기 중엽의 초월주의(Barthianism)에 영향을 미쳐, 인본주의를 타파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 경건주의 운동의 특색

(1) 개인주의적 특색

구원관에 있어서 구원의 사회성(社會性)에 앞서서 개인성(個人性)을 강조함으로 강한 개인의 죄의 개념을 강조함으로, 먼저 개인의 죄에서의 구속과 회개와 성령의 체험을 통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촉구 한다

(2) 종교적 체험을 강조함이 특색

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知的理解)나 수납(受納)보다도 그 교리가 체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확실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신 득의(以信得義)의 교리보다도 성화교리(聖化敎理)를 강조함으로 종교의 경건 생활(宗敎 敬虔生活) 윤리의 특색(倫理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3) 예수 지상주의의 특색

예수의 직접적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 삼위일체(三位一體) 교리 중, 제2위에 치우친 일신론(Unitarianism)의 위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창조주요 구속의 설계자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구속의 적용자로서의 성령님을 도외시하는 예수 일변도의 신앙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신학의 방법론(神學方法論)에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

4) 경건주의 운동의 공과 (교회사적 의의)

(1) 회개(悔改)와 성결로 경건생활(敬虔生活)을 강조함으로 17세기 메말랐던 교회에 활력(活力)을 불어넣었다.

(2) 가톨릭교회의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 운동의 거센 바람을 프랑케와 진센돌프의 선교 열로 잠재우게 되었다.

(3) 그러나, 경건주의는 수도원 운동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현실도피 주의의 세계관을 면치 못하였다 (Ritschl)

(4) "교회안의 교회"의 "소교회 개념"(小敎會 槪念)을 실천화시킴으로서 지나친 "자아 독선적 교회관"(自我獨善的 敎會觀)에 빠지게 되었다.

(5) 경건생활(개인주의적)에 치우치다 보니, 정통적인 교회교리를 경시하여 신앙의 교리적 체계화에 약점을 나타냈다.

(2) 합리주의 (合理主義, Rationalism)

종교적 합리주의(宗敎的 合理主義)는 성경계시의 영감성(靈感性) 보다도 성경해석상의 문제를 중요시하여 성경해석의 합리성(合理性)을 찾으려는 데 합리주의의 의도가 있다. 합리주의는 정통주의(正統主義)의 반동뿐만 아니라, 스콜라철학(Scholarism)의 몰락(沒落)으로 철학의 독립과 신학에 대한 대항, 경건주의, 신비주의의 반동, 현대과학을 비롯한 물리학, 수학, 천문학, 수사학 등의 발달 등 직. 간접적인 잡다한 사상들을 온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합리주의는 교리의 신앙적 수납보다는 이성(理性)에 의한 교리의 해석(聖經解釋)과 신앙의 근본적인 이해와 수납의 방편으로 보고 합리성을 강조한다.

1) 자연신론 (自然神論/理神論, Deism)
(Animism, Materialism, Pantheism, Hypnotism)

(1) 자연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2) 하나님은 제일원인(first cause)으로서 자연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unmoved mover, the first cause, the originator of motion, non-creator)

(3) 자연법칙을 만들어 우주의 운행을 이 법칙에 맡기셨다 (cosmology/the universe began, the universe must have an adequate cause)

(4)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운행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섭리나 이적이 없다.

(5)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므로 신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6) 기독론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도덕적 인간의 모범에 불과하다.

(7)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하며,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연신론의 입장).

이와 같이 17세기 영국의 지성사회에 풍만했던 자연신론(deism)의 인간의 합리성을 수단으로 비판주의 원리(principle of criticism)를 유도하였고, 비판주의 원리는 종교의 관용주의(寬容主義)를 낳게 하였다.

이 관용주의는 기독교의 계시의존성(啓示依存性)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자연종교의 길을 열어놓고 말았다. 파스칼(Pascal)이나 뉴우톤(Newton)은 자연과 신앙의 조화를 시도했다. (gravity, 미적분, 소분자)

2) 계몽주의 (啓蒙主義, Aufklärung, Enlightenment)

합리주의(rationalism)나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진리에 대하여 객관적 성경계시에 의한 타율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 이성에 의존한다. 영국의 합리주의는 복음주의 부흥운동을(Wesleyan의 복음주의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는 계몽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1) 원조: 파우스투스 소시너스 (Faustus Socinus, 1539-1604)

① "라코비안 교리문답" (Racovian Catechism)

1) 기독교의 교리 중 비합리적인 것은 폐기처분
2) 성경의 권위는 이성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
3) 종교에 대해서는 합리적 종교(Religio rationalis)만을 인정

4)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
5) 기독론에서 일성론(Unitarianism)의 모체가 됨(Socinius)
6) 인간론에서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
7) 구원론(救援論)에서 예수의 제사장직 부인, 속죄론 불요를 주장
8) 종말론에서 재림론은 허구며, 신비에 불과하다고 함

② 그의 사상의 영향

1) 계몽주의 신학에 영향을 줌
2) 자유주의 신학을 배양하는데 기여함
3) 이념: 하나님, 자유, 영혼불멸

(2) 대표적 인물

① 볼프 (Christian Wolff, 1679-1754)

1) 할레대학에서 수학과 철학 강의하였다.
2) 라이프니쯔(G.W Leibniz) 이론을 체계화한 합리적 종합철학이다.
3) 처음에는 그 주장 때문에 할레대학(Halle)에서 추방당했다(Marburg).
4) 후에 다시 초정되어 18세기 후반 독일학계를 휩쓸었다.
5) 그의 철학은 칸트의 비판철학의 배경이 되었다.

②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 1729-1781)

1) 신학자라기보다 극작가이다.
2) 신학논문 (Fragment; On the Intentions of Jesus and his Disciples)의 파문: 역사적 질문의 불모성을 지적했다.
   (1) 성경예언, 이적사건의 역사적 실제 접촉으로만 진의를 수납할 수 있다고 한다.
   (2) 과거역사의 보고(report)로 접하기 때문에 불가지론적이다.
   (3) 역사적 지식은 참지식이 아니다. 즉 역사적 우연의 진리가 필연적 진리는 될 수 없다고. 한다.
   (4) 성서이해의 3단계: ① 구약, ② 신약, ③ 이성의 단계로 구분한다. (아동기/상벌, 청년기/희생, 장년기/의무감)

(5) 예수는 도덕적 선생에 불과하다.

(6) 성경은 일종의 문학적 연구대상 (철학적 불가지론/Lessing big ditch/nasty big ditch=accidental truth of history and the necessity truth of reason)

3) 경험주의 (經驗主義, Empiricism)

17세기 경험주의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흄(Hume)과 록크(John Locke, 1637-1703)이다. 그중에 특히 록크(Locke)의 논문 "인간 이해론"(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은 영국 자연신론적인 합리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 기독교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조화를 시도했다.
(2) 데칼트(Cartesius)의 "내재관념"을 거부하고,
(3) 감각 경험적 지식은 절대화할 수 없고 개연성, 합리적일 뿐.
(4) 모든 지식은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원시기독교 회복)
(5) 신 존재론에서 전통적, 우주론적 논증을 수용
(6) 계시는 경험적 지식의 실재이다.

4) 관념론 (觀念論, Idealism)

◉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

18세기 관념론 철학의 대가는 칸트로서 그는 사실상, 철학자일 뿐 신학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는 1781년에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 The Critique of Pure Reason)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의 한계성을 설명해서 기독교의 초자연주의를 배격함으로써 이적이나 구속의 개념을 거부하고, 1788년에 "실천이성비판"(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을 통하여 순수이성비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적 요청으로 종교의 문제, 즉 하나님, 자유의지, 영혼불멸의 필연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1790년에 가서 "판단비판"(The Critique of Judgement)을 통하여 심미적인 문제(審美的 問題)와 우주의 목적(宇宙의 目的)을 다루었다.

칸트(Kant)의 지식론은 사실상,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의 합리주의에 실천이성비판(實踐理性批判)의 경험주의를 판단비판의 종합비판(綜合批判)에서 해결을 보려고 시도하였다. 칸트는 경험적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지식을 마음의 실재에 관한 지식에 부합시키려는 합리주의적 자료를 판단비판(判斷批判)을 통하여 분석 정립하는 것이다.

(1) 지식의 판단과정은 시(時), 공(空), 수(數), 인과(因果)의 적용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2) 그러나 그 실재자체의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3) 형이상학적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을 폈다.

(4) 하나님, 자유, 영혼불멸성은 순수이성이 아니라 그것의 도덕적 요청인 실천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5) 이로 인하여 종교의 도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6) 기독교를 합리적인 윤리종교로 전락시켰다.

(7) 예수를 도덕적 스승으로 여겼다.

2. 19세기 신학의 상황

18세기 말의 칸트의 사상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필연적 법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현상의 자아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실재자아를 발견하려고 함으로써 자율주의 합리주의의 극치를 보았던 칸트의 사상이 19세기 자유주의를 발아시키는 온상이 되었다. 칸트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조화를 위한 동시 수용방법의 영향으로 19세기 낭만주의와 주관주의적 자유주의를 태동시켰다.

(1) 주관주의 (主觀主義, Subjectivism)

19세기의 신학은 자유주의(Liberalism)의 대부(大父)라고 할 수 있는 슈라이엘마허(Schleiermacher)의 철저한 경험주의(經驗主義, Empiricism)에 입각한 주관주의(主觀主義)가 원조를 이루고, 20세기 신학의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로 가는 첩경을 열어놓게 되었다.

◉ 슈라이엘마허 (Friederich Daniel Schleiermacher, 1768-1834)

(1) 모라비안(Moravian)계 경건 파 목사의 아들로 할레대학(Halle)을 거쳐 베르린대학(Berlin)의 교수로 평생을 재직.

(2) 19세기 낭만주의의 꽃을 피웠다 (인간의 활동은 단순히 지적활동에 멎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영역에 까지 포함)

(3) 1799년 “종교론”(Reden Uber die Religion, On Religion, Speeches to Its Cultured Despisers)을 저술하였음.

1) 종교의 본질 론을 다룬 것으로,

2) 기독교를 그대로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당대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3) 종교란 본래 사고의 양식이나 신조, 또는 신학적 체계로서가 아니라, 사유와 행위 양자의 양립상태로서의 직관적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4) 하나의 체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존 감정”(絶對依存感情, The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으로서,

5) 세상의 존재의식(存在意識)이 아니라 신. 인간(神人間)의 절대연합의 신 존재의식(神存在意識)에 기초하고 있다.

6) 종교 목표는 유한한 인간을 절대자인 신에게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4) 1821~1822에 “기독교 신앙”(Der Christlice Glaube, The Christian Faith)을 저술하였음.

1) **基督敎:** 기도교의 우월성(비교 종교적으로)은 보편적인 의존감정 이외에 죄와 은총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데 있다.

2) **罪觀:** 죄란 인간의 타락에서가 아니라 자아의식과 신의식의 연합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죄(original sin)는 인간이 절대 신 의식의 완전성을 상실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 죄의 관념은 신. 인 관계뿐만 아니라 타에서의 분리 상태를 말하며, 은혜의식에 선행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인간의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죄는 세상의식(世上意識)이 신 의식(神意識)을 이기는 것이며, 영생(永生)이란 신. 인간의 의식의 합일상태(合一狀態)를 의미한다.

3) **救贖論:** 구속은 이러한 분리 상태(分離狀態)가 합일상태(合一狀態)로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합일관계를 이루어 귀의감정(歸依感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구속은 이성적 사고(理性的 思考)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에서 체험하는 구체적이 사건을 의미한다. 구속은혜는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신 의식 갱신의 경험이다.

4) **基督論:** 신. 인의 분리상태(分離狀態)를 합일상태(合一狀態)로 복귀하기 위하여 귀의감정(歸依感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된다.

① 예수는 완전한 신 의식(神意識)을 가진 중보자(仲保者)로 그 안에 참 하나님이 현존(現存)하신다.

② 예수는 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참다운 신.인관계 (神人關係)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③ 이것은 하나의 구속경험에 의한 중보역학(仲保力學)을 의미하는 것이다.

5) **敎會論:**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의 공동경험을 갖게 되는 "그리스도 경험'을 뜻한다. 그러므로 신학은 상황에 따르는 교회의 변화를 따르기 때문에 고정된 사상(fixe idee)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6) **聖經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종교(基督敎)가 신. 인의 실재에 대한 의존감정(依存感情)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나 고정화된 과학의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교 또는 기독교의 좌소나(座所)나 출발점(出發点, starting point)이 성경말씀(神學)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체험(主觀的 體驗)에 둔다. 신학의 출발점은 성경에서 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인간이해(人間理解)에 있다.

(5) **결론적 평가 (結論的 評價)**

1) 교리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종교를 하나의 주관적 감정에 맡겨버림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열어놓았다.

2) 종교의 주관적 요소들을 과대 강조함으로 객관적 요소들을 성경의 용어(교회, 그리스도, 구속)나 표현들로 위장해버렸다.

3) 칸트에 대항, 종교의 영역을 형이상학이나 도덕의 영역을 넘어서 신 의존감정에 치우침으로 신. 칸트주의의 과오를 범했다.

4) 슈라이엘마허의 낭만철학(浪漫哲學, romantic philosophy)은 피테(J.G. Fichte, 1762-1814), 쉘링(F.W.J. Von Schelling, 1775-1854), 헤겔(George W.F. Hegel, 1770-1831)에게서 관념론으로 발전을 보게 되었다. (Paul Tillich의 principle of correlation과 비슷)

(2) 역사주의 (歷史主義)

독일의 역사주의는 존재론이나 관념론 등 본질론에서가 아니라 변증법적

방법론으로서 정(正, thesis), 반(反, antithesis), 합(合, synthesis)의 역사적 발전 과정으로 나타난 일종의 방법론을 말한다.

본래 역사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헤겔(George W.F. Hegel)은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독일의 관념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보는 바, 그 관념론에 있어서의 실재를 변증법적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면에서 볼 때 역사주의자라 하겠다.

본래 독일 관념론은 칸트(Emmanuel Kant)에서 발단한 것으로 슈라이엘마허(Schleiermacher)의 내재적 경험철학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을 헤겔에 와서 역사적 방법론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헤겔 (George W.F. Hegel, 1770-1831)**

◉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 학자이나 방법론 강조로 역사주의 학자**

(1) 하이델베르그 대학(heiderberg, 1816-1817), 피테 후계자로 베르린대학(Berlin, 1818-)에서 철학 주임교수로 봉직.

(2) 헤겔의 신 개념은 정신(精神, Geist), 즉 내재적 "절대정신"(絶對精神, absolute Spirit)으로 유심론(唯心論)의 경향을 나타낸다.

(3) "절대정신"만이 내적, 객관적 자존자이며 자기 보존 및 자기완성이며, 역사나 자연, 인간의 정신도 절대정신의 자아의식 상태라는 면에서 볼 때, 내재주의(內在主義)라 할 수 있다.

(4) 헤겔은 정(正) 반(反) 합(合)이라는 변증법적 역사의 진전과정(進展過程)의 패턴(pattern)을 사용했다.

(5) 이 변증법은 역사의 해석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 성경해석에 까지 적용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튀빙겐 학파(Tübingen school)의 원조인 바우어(F.C. Bauer, 1792-1860)이다.

Ex. 기독교의 변증법적 발전과정

① 베드로의 원시적 기독교 (正, thesis) 1세기
② 바울의 반작용의 기독교 (反, antithesis) 2세기
③ 원시적 가톨릭교회 (合, synthesis) 3세기

(6) 이러한 변증법적 성서연구로 인하여 예수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길을 열어놓아, 이후에 "역사적 예수의 탐구"가 활발해졌다.

◉ 역사적 예수 탐구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

1. 라이마루스 (Hermann Samuel Reimarus, 1694-1764)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최초로 비평적 연구를 시도한 사람으로 주요 저서 "예수와 그 제자들의 목적에 대하여"(Von den Zwecke Jesu und Seiner Junger)가 있다.

1) 라이마루스의 신학사상

①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운동은 유대 나라의 회복운동이다.
②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발전과 도덕을 세우신 분이다.

③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일 뿐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다.
④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실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조작이다.

2) 비 판

① 예수님의 천국운동이 다만 유대 나라의 회복운동을 의미한다는 것은 유한적 지상나라인 유대 나라와 영원적 영적 천국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마 5:3, 10)

② 예수님은 한낱 모세의 율법의 전수하여 발전시키고 보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메시야적 진리를 모르는 데 기인한 것이다(마 5:17, 막 10:45)

③ 예수님이 유대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고 해서 유대의 선생일 뿐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전파의 순서를 모르는 데 기인한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행 1:8).

④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조작이라고 하나,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철저히 성경의 증거로 입증되었고(마 28:1-7; 막 16:6; 눅 24:1-49, 여자들, 베드로, 엠마오 청년들; 요 20:1-31, 마리아, 베드로, 도마; 고전 15:1-19, 바울, 기타).

2. 파우루스 (Henrich Eberhard Gottloh Paulus, 1761-1851)

1) 이 학파의 극단파의 대표적인 인물

2) 예나(Jena)대학(동양어 교수, 1811),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교회사 주경신학 교수로 (1844 까지)

3) **"예수전"**(Leben Jesus als Grundlage einer reiner Geschichte des Urchristenthum, 1828) 저술.

① 복음서의 사실성(史實性)과 초자연적 이적의 불가능성의 조화를 시도.

②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의 합리적 설명시도를 위해, 청중들을 감동시킴으로 내놓은 것으로 5,000여명 먹였다고.

③ 기절설(氣絶說, swoon theory)을 주장, 제자들이 기절한 예수를 서늘한 무덤에 안치한 후 무덤 안의 회복조건과 지진에 의하여 깨어난 것 뿐, 실제적 부활이 아니라고.

3. 스트라우스 (D.F. Strauss)

"예수전"(La Vie de Jesus): 예수의 생애

1)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였다.
2) 예수의 인간적 생애를 중심으로 평면적으로만 다룸.
3) 예수의 이적은 신화적인 것으로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4) 예수의 역사적 조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다.
5) 진리는 어느 한 개인 속에만 머무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만이 진리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4. 중도파들

1) 할레대학의 토룩(F.A. Tholuck, 1779-1877), 베르린대학의 도르너(I.A. Dorner, 1809-1884), 네안더(J.A.W. Neander, 1789-1850)등이 있다.

2) 홀츠만(Henrich J. Holtzmann)의 "예수전"(Die Synoptitisch Evangelien, 1863), 르낭(Joseph E. Renan)의 "예수전"(La Vie de Jesus, 1863, 예수를 경제적 메시야로 오인)

(3) 신 칸트주의 학파 (Neo-Kantianism)

예수는 진리를 역사 속으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 진리 자체나 영원한 진리의 수호자도 아니며, 참 진리는 역사의 한 지점이나 한 개인에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스트라우스(Strauss)의 회의주의에 맞서서 19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학파인 신칸트주의 학파가 일어났다.

1) 리츌 (Albrecht Ritschl (1822-1889)

리츌이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眞理의 絶對性)과 신앙의 필요성(信仰의 必要性)을 주장하여 역사성을 새롭게 강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Kant)의 전통을 따라 기독교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화 작업을 실천한 그의 신학은 실천 윤리적 관점(實踐倫理的 觀点)에서의 하나님과 인간구원에 대한 교리로 귀착되었다.

(1) 헤겔이 종합적(synthetic) 방법을 구사한데 반하여, 리츌은 신학을 자연종교(deism)나 형이상학(metaphysics)으로부터 분리시켜(diastasis) 그리스도의 계시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했다.

(2) 종교적 진리는 이성을 통한 지적인 이해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게 된다고 했다.

(3)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community consciousness)에서 그 가치를 찾는 것이다.

(4) 형이상학이나 자연종교는 무가치하며, 철학을 통하여 “제일 원인”(the first cause)으로서 신(神)을 말할 수 있으나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우주론적 증명은 가능하나 결국 불가지론적임)

(5) 神觀: 인격적이나, 진노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을 부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부성애(父性愛)를 보여줌.

(6) 하나님의 삼위일체론(三位一體論)이나 그리스도의 양성론(兩性論)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가 누구냐의 존재론적 가치판단보다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감화를 주느냐의 도덕적 가치판단이 신학적 우위를 취한다고 함.

(7) 基督論: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개인의 구주에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그의 도덕적 모범에서 찾아야 한다고.

(8) 그리스도는 모범적인 도덕적 인간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이겼고, 하나님의 계시자로, 즉 이상적인 인간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부성애를 계시하는 매체로서의 부성애가 그의 하나님 나라 개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9)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내세성(來世性)보다 개인구원이 아닌 현세 사회공동체의 성도들의 도덕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10) 신학의 특징을 요약하면:

1) 소극적으로

① 형이상학의 배제하고
② 신비주의의 부인하며
③ 교리적 불가지론 입장을 취함

2) 적극적으로는

① 예수의 역사적 계시를 강조(도덕적 실체)
② 신학사상의 중심은 하나님나라의 개념 (사회공동체 개념)
③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성격 강조 (도덕적 감화성)

(11) 리츌 신학의 평가

1)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하면서도 상대적 가치판단을 내세우는 이율배반적 논리에 빠지고 말았다.

2) 기독교의 형이상학성, 신비성을 무조건 부인함으로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도덕적 사회적 실용종교로 전락시켰다.

3) 개인구원보다 사회구원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찾으므로 비 복음적 사회복음주의(社會福音主義)를 들어냈다.

4) 삼위일체(三位一體)나 그리스도의 양성(神人兩性)을 정면으로 무시함으로 반 교리적(反教理的)이며,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에 빠지고 말았다.

(12) 리츌 신학의 영향

1) 그리스도의 도덕적 감화력(道德的 感化力)과 문화적 중요성(文化的 重要性)의 강조로 기독교의 사회윤리주의 운동(社會倫理主義 運動)을 촉진시켰다.

2) 헤르만(Wilhelm Herman, 1846-1922), 하르낙(Adolf J. Harnack, 1851-1930), 트뢸취(Troeltsh, 1865-1923)에게 영향을 줌.

3) 특히, 20세기 초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h, 1861-1918)에 의하여 사회복음주의(social evangelism)가 미국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2) 헤르만 (Johann Wilhelm Hermann, 1846-1922)

할레(Halle)대학의 조교수(1875-1878), 말부르그(Marburg, 1879-)에 조직신학 교수로 많은 저서를 남겼다.

(1) 철학에 있어서는 칸트(Immanuel Kant=불가지론)를 따르고, 신학에 있어서는 리츌(Albrecht Ritschl=윤리적 사회복음주의)을 따랐다.

(2) 종교는 독특한 현실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Kant 와 Ritschl의 사상적 영향)

(3) 종교의 환상은 객관화시킬 수 없고 역사적 진리는 상대적이며, 상대적 진리는 해방능력이 없으므로 예수의 이적 적 사역과 같은 역사적 사역들(동정녀 탄생, 부활)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성경기사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5) 역사적 예수의 생애가 개인에게 윤리적 가치를 깨우쳐 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실존주의적 이해)

3) 하르낙 (Adolf von Harnack, 1851-1930)

하르낙은 베르린(Berlin) 대학교수(1889-1921)로서 교부신학(敎父神學)의 권위자였으며, 문화와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시도 실용종교를 주창하였다.

(1) 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核, Kerygma)을 발견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 기독교의 의미는 역사적 연구방법과 실제 생활에서의 인격적 경험을 통하여 찾아야 한다(기독교의 본질, Das Wesen des Christentums).

(2) 복음의 핵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틀(frame)을 발견해야 하며, 그 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Formgeschichte, Form-criticism)

(3) 복음서의 이적, 귀신, 종말들은 복음의 사실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복음의 핵을 담고 있는 틀에 불과하며, 복음의 본질인 핵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

(4)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복음의 본질은

1) 하나님 나라의 도래
2) 하나님의 부성애 관계와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3)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사랑

(5) 예수께서는 신앙의 대상은 예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부자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천재라고.

(6) 신학적인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과 **교의**로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중 복음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 이후 초대교회 제자들에 의해 추가된 복음).

(7)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은 헬라사상의 영향으로 추가, 오염된 복음임으로 재발견해야 할 복음들이다.

「결론」 복음의 이중성을 주장하며, 복음의 재해석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신학으로 복음주의는 물론 신정통주의(바르트)의 반발을 초래했다.

(4) 종교사 학파 (Religiongeschichtliche Schule)

(Wilhelm Bousset, Wilhelm Wrede, Hermann Gunkel)

신칸트주의(Neo-Kantianism)의 리츌(Ritschl) 학파가 나타난 후(1870) 20여년 후인 1890년대에 종교사학파(Religiongeschichtliche schule)가 등장했는데, 이 학파의 이름은 1904년에 제레마이아스(A. Jeremias)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고팅겐(Gottingen)을 중심으로 리츌학파와 대립된 입장에서, 교의신학 보다는 성서신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혼합주의적 기독교 이해의 특색을 갖는다.

1) 벨하우센 (Julius Welhausen, 1844-1918)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들로는 군켈(Hermann Gunkel, 1862-1932), 부셋트(Wilhelm Bousset, 1865-1920), 브레데(Wilhelm Wrede(1859-1906)등이 있으며, 성경을 문화적 차원에서 연구하며 비교종교학적 연구방법론 (比較宗教學的 硏究方法論)을 채용하고 있다.

(1) 벨하우센(Welhausen)은 기독교를 다신교(多神教)에서 윤리적 유일신교(唯一神教)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 고등비평가(高等批評家)로 알려졌다(*Geschichte Israelis, 1878 Published*)

(2) 모세오경의 자료들 J. E. P. D. 문서설(文書說)을 주장하고, 구약 선지서들이 모세의 율법보다 앞섰다고 주장.

(3) 군켈(Gunkel)은 기독교를 하나의 혼합종교(syncretism)로 보고, 기독론에 있어서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4) 그는 종말론의 이야기들을 옛 동방사람들의 여러 가지 전설(傳說)들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본다. (창세기 1장의 신화, 계시록 12장 용의 싸움은 바벨론 전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Tiamat/Malduk)

(5) 시편연구는 문학적 비평의 고등비평 방식을 따라 후의 양식사 비평에 영향을 주었다 (중동문화의 연구로, 시편의 양식들은 어떤 특정된 축제의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6) 그러나 종교사학파는 문학비평 보다 역사적 비평방법을 더 중시하고 있다.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의 개별적 개연성을 지양하고 전체적 연관관계에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7) 기독교는 전체적 문화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2) 언스트 트뢸취 (Ernst Troeltsch, 1865-1923)

트뢸취는 리츌(Ritschl)의 제자로서 고팅겐(Gottingen), 본(Bornn), 하이델베르고(Heidelberg)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1) 스승인 리츌(Ritschl)과 슈라이엘마허(Schleiermacher)의 신학사상(神學思想)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

(2) 종교를 연역적(演繹的), 혹은 선험적인(先驗的, a priori)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첫째로,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둘째로, 선험적인 것이 종교의 핵심인 것으로 보았다. (종교적 a priori가 종교의 합리적 핵심을 이룬다고)

(3)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絶對宗教)가 아니라 고등종교(高等宗教) 중에 최고의 종교(最高의 宗教)라고 보았다.

(4) 역사철학자 딜데이(Dilthey)의 역사적 비평주의의 영향을 받아 역사연구의 삼대원리를 주장했다. (He is not so much a Biblical theologian as a historical philosopher).

(1) 역사연구의 삼대원리 (Three Principles of Historical Study)

1) 비판의 원리 (批判 原理, Principle of Criticism)

역사적(歷史的) 방법은 개연성(蓋然性)이 있을 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건으로 전래 된 모든 전승(傳承)들은 수정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2) 유추의 원리 (類推 原理, Principle of Analogy)

역사적 사건의 동질성(同質性)에 의한 일상적 경험(日常的 經驗)으로부터 유추(類推)하여 과거의 사실의 개연성(蓋然性)을 결정함으로, 현재의 이적사건(異蹟事件)의 부당함을 증명함으로써 과거의 이적사건을 부정한다.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유추하여 과거 사실의 개연성을 결정하며, 그러므로 이 유추에는 모든 역사적 사건의 동질성이 전제돼야)

3) 상관작용의 원리 (相關作用 原理, Principle of Correlation)

모든 역사는 독자성(獨自性)과 연관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서, 전후좌우(前後左右)의 밀접한 관계의 상관작용(相關作用)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고로 역사의식은 전체적인 연관선상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모든 종교 역시 이 연관선상에서 이해되고 정의되어야 함으로 기독교까지도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 종교일 뿐이라고 한다.

(2) 트뢸취의 교회관 (사회학적 측면 구분)

1) 은총의 수단으로 피할 수 없이 거룩함을 지닌 교회
2) 중생한 사람들의 배타적 공동체로서의 소종파적 교회
3) 개인의 내적, 영적 생활에만 관심을 가진 신비적 교회

(3) 트뢸취의 기독교관 (신학적 측면)

1) 사회학적 분석을 통한 기독교의 상대화
2) 역사학적 분석을 통한 기독교의 수평화
3) 기독교 본질론에 대하여 주관적 해석

「결론」 기독교의 상대화, 수평화 작업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절대화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진화론의 발전과정으로 대치시켰다.

※ **Hypereschatology**

(1) Johanes Weiss
(2) Albert Schweitzer
(3) C. H. Dodd (realized eschatology)

※ **Heilgeschichte** (Oscar Cullmann)

II. 현대신학의 출현

어거스틴(Augustine) 이후, 안셀름(Anselm), 가톨릭의 대부 아퀴나스(Aquinas), 루터(Luther)와 칼빈(Calvin)의 종교개혁을 거쳐, 19세기 초에 나타난 자유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슈라이엘마허(Schleiermacher)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Karl Barth)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칼 바르트를 현대신학의 기점(起點)으로 보고 있다.

18세기부터 계몽주의(啓蒙主義), 자연주의(自然主義), 인본주의(人本主義)의 영향으로 신학의 자유주의화(自由主義化)가 시도되어 19세기에 "예수의 역사적 탐구"(歷史的 探究)로 "예수전"(예수傳)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만 보며 그리스도론을 추구하던 신학자들에 의하여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초월성(超越性)을 강조함으로 일대 신학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칼 발르트(Karl Barth)이다.

사실, 칼 바르트 바로 앞의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가 1906년에 "라이마루스(Reimarus)로부터 브레데(Wrede)로"(Von Reimaru Zu Wrede), 영어로 "역사적 예수의 탐구"(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는 책을 출판하여 신학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예수에 관한 탐구는 "종말론적 메시아의 대망사상"(終末論的 메시아 待望思想)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초종말론, 초역사론을 암시함으로 바르트로 넘어가는 첩경(捷徑)을 준비해 준 결과가 되었다.

[1] 칼 바르트 (Karl Barth, 1886-1968)

1. 칼 바르트의 생애

(1) 1886년에 출생, 제네바에서 목사가 되었다.
(2) 아르가우 칸톤(Aargau Canton)에 있는 사펜빌(Safenvil)에서 목회
(3) 독일 괴팅겐(Göttingen) 대학 교수로 초빙 받음.
(4) 1925년 뮌스터(Müster) 대학으로 이임,
(5) 1930년에는 본(Bonn) 대학 교수가 됨.
(6) 한때, 히틀러의 서약에 거부한 연고로 쫓겨남.
(7) 고국 스위스의 바젤(Basel) 대학에서 계속 강의.
(8) 1968년 82세를 일기로 서거함.

2. 칼 바르트 사상의 발전단계

(1) 초기단계 (自由主義 神學에 빠짐)

1) 슈라이엘마허의 사상(Schleiermacher's thought-forms)에 젖었었는데, 이는 19세기의 종교적 개인주의로 자유주의 신학이었다. 그는 "로마서 주석"의 출판(1918)을 계기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바로 "죄"(罪)라고 정의했다.

2) 그의 학문의 배경이었던, 당시의 명문인 베를린(Berlin) 대학, 튜빙겐(Tübingen) 대학, 말부르그(Marburg) 대학을 다니며,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신-리츌(Neo-Ritschl) 학파인 하르낙(Adolf Harnack)과 헤르만(Wilhelm Herrmann)의 신학에 심취되었었다.

3) 그 당시 바르트의 신학사상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어서, 성경은 한낱 인간의 책이고 종교적 체험을 기록한 책으로 도덕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4) 그러나 바르트의 신학사상(神學思想)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 1차대전의 비극적인 전화를 목격하면서 인간의 죄악상을 설명하는 데 자유주의가 실패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Kaiser 황제의 국가지상주의 정책에 저명 신학자들 서명)

② 자신의 10여 년 간의 목회생활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들을 위로할 길이 없다고 판단, 자신의 신학적 시각의 변화를 몰고 온 것이다.

③ 이웃 교회 목회자 더니센(Eduard Thurneysen) 목사와 함께 성경연구를 함으로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 인본주의적 자유주의를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④ 성서연구를 통한 신본주의 입장으로 전환하게 됨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접하기 시작하여, 19세기의 유신적 실존주의 신학자 키엘케고르(KierKegaard)를 만나게 되었다.

(2) 제2 단계 (말씀의 神學의 段階)

1) 1921년 수정 증보된 "로마서주석" 제2판이 출간되면서부터 바르트의 신학사상은 큰 변화를 보였다.

2) 하나님과 인간의 혼동(confused) 내지 저하(lower)의 주관주의 신학(subjectivism theology)에 반동으로 키엘케고르(Kierkegaard)의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이 인간 되게 하라.
②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진리를 이기적 목적에 오용하는 것.

3) 이 주석을 통하여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인간중심(人間中心)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個人主義的 自由主義)에 일격(一擊)을 가하게 되었다.

4) **神觀:** 바르트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절대 타자"(絶對他者, absolute other)로서 인간과 초절해 계시는 하나님이다.

5) **人間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고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충돌과 십자가가 있게 된다. 십자가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인간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 **神人關係:** 신인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 신인관계를 끊임없는 위기관계(危機關係)라고 본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즉 "당신"(Thou)과 인간 즉 "나"(I)와의 대화관계로 생각한다. 이 신인교통의 문제에 바르트는 대답한다. 예수를 20세기적인 인물로 보고 관계를 수립해나간다. (실존주의적)

7) **聖經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성경은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evidence)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계시로 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의 신학을 "말씀의 신학"이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

8) **啓示觀:** 성경 자체가 계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한 역사에 구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키엘케고르의 초절주의의 영향으로 계시와 역사를 분리시켰다.

9) **歷史觀:** 바르트는 역사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Historie)와 "초 역사"(Geschichte), 혹은 참 역사(Ulgeschichte)로 구분하여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historical facts)을 실존주의적 사건(existential events)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의 역사성을 말하면서도 그 사건들이 "초 역사"(Geschichte)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에 실존적 의미를 부여함으로 역사성을 부인 한다 ("To be sur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historical and physical, but it is so in the sense that it is inwardly something, via. Geschichte," Conelius Van Til, Christianity and Barthianism, 1962, p. 25).

10) **神學方法論:** 바르트의 신학적 방법은 변증법적(辨證法的)인 방법이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의 은총과 심판, 하나님의 긍정(God's Yes)과 부정(God's No)등의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이러한 대립관계는 하나님 앞에 마주설 때에 해결된다고 한다.

그 하나님은 "숨은 하나님"(implicit God)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explicit God)으로 본질상 역설적(paradoxical)인 방법으로 임하신다. 인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elected) 자인 동시에 유기된(reprobated) 자이다. 인간은 죄인(sinner)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the righteous)이다.

(3) 제 3단계 (脫實存主義化 段階)

1) 주관주의적(主觀主義적) 내재주의(內在主義)에 반동으로, 초월주의(超越主義)를 지나치게 주창하여 "위기의 신학"(Theology of Crisis)의 정상에 올랐던 바르트(Barth)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키엘케고르(Kierkegaard)의 영향으로 입은 실존주의적 용어와 오해를 씻어버리려고 "교회교의학"(Kilchliche Dogmatik: Church Dogmatics, 1932)을 썼다.

2) 그는 여기서 관념론적인 철학용어와 실존주의의 오해를 벗어버리기 위한 "탈 실존주의" 작업으로 변증법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성육신을 주장함으로 계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학을 수립했는데 이에 대하여 부룬너(Emil Brunner)는 "신 바르트"(Der Neue Barth)란 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3. 칼 바르트의 공과 (신학의 공헌과 문제점)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학교 변증학 교수(辯證學 敎授)인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학자들(G. C. Berkauwer를 비롯하여 개혁주의 신학자들까지)이 바르트의 신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 대체적으로 바르트는 한 세기에 날까 말까한 위대한 신학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개혁주의(改革主義) 입장에서 부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은 대단하다.

(1) 20세기의 신학적 혁명을 몰고 온 신학자
(2)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신학의 거장(巨匠)
(3)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킴
(4) 그리스도 중심, "말씀의 신학"을 체계화함

위에서 요약해서 평가한 대로 바르트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신학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을 가져다 준 공을 세운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반면에 정통신학(orthodoxy theology)과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신학적 경계선상(境界線上)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19세기의 인본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통신학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자유주의(humanistic liberalism)와 정통주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통주의를 벗어난 신-정통주의(Neo-orthodoxy)가 되었고 인본주의를 넘어선 고등인본주의(higher humanism)의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점들이 그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다.

(1) 말씀의 실존주의적 해석의 오류

바르트(Barth)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타파(打破)하려고 하나님의 초월성(超越性)과 자유의 본질(自由의 本質)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은 성서를 탈출한 자유로운 타자(他者)로 인간에게서 멀리 가버린 타자가 되어버렸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1) 人間은 타락(墮落)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완전 상실(喪失)하여 소망(所望)이 없는 존재(存在)가 되었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존재(人間存在)로부터 존재의 유추(存在의 類推, *analogia entis*)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의하여 신앙의 유추(信仰의 類推, *analogia fidei*)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4) 聖經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계시에 대한 증거로만 보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정통주의 성경관을 이탈하고 있다. 성경에 실존적 의미가 부여될 때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 이므로 성경에 매일 수 없다는 것이다.

5) 성경(聖經)은 인간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시(啓示)가 아니므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6) 성경해석의 방법론은 역사적, 비평적 입장을 취함으로 후대의 실존주의 성서 비평학자(聖書批評學者)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2) <u>그리스도론 중심 일변도(Christology-centered)</u>

1) **神論:** 바르트(K. Barth)는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 신론의 교리와 그에 따른 그리스도론 중심으로 신학을 설명해 나간다.

① 그리스도 안에서, 즉 화육 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만이 성부, 성자, 성신의 신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成肉身)이 된 아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계시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안에서 인간을 만나신다.

③ 정통신학과 달리 오직 그리스도론을 우선적으로 논하고 이에 따라 모든 신학적 이슈들(issues)을 다루게 된다. (例: 그리스도→아담).

④ 그러므로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실존주의 해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2) **基督論:** 그리스도는 선택(選擇)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유기(遺棄, reprobation)된다.

3) **人間論:** 인간론에 있어서, 아담 안에서 인간의 본질과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찾는데, 이유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원형(原形, prototype)이기 때문이라 한다.

① 인간의 본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존적 존재로서 발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론적 실재(existential reality)와 이에 따른 죄(罪)의 존재론이 실재로 불가능하게(ontological impossibility) 된다.

② 그러므로 인간의 원죄(原罪)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동정녀(童貞女)에게서 탄생하실 필연성이 없어진다.

4) **十字架:** 그리스도의 십자가 事件은 역사적 사건(Historie)이나, 그의 부활사건은 초역사적 사건(Geschichte)으로 은총의 사건이다.

5) 바르트의 지나친 그리스도 중심원리는 만인구원(萬人救援, universalism)과 이신득의(以信得義, righteousness by faith)의 상충 모순을 낳고 말았다.

6) **復活論:** 부활사건(復活事件)의 역사성을 부정함으로 성경의 역사적 부활사건(歷史的 復活事件, historical fact of the resurrection)을 거부하고 가현설(假顯說, Docetic)로 낙착되고 말았다.

(3) 교회론의 문제 (Problems of Ecclesiology)

바르트(Barth)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간 지역교회(local church)의 목회생활에서 터득한 교회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그가 "말씀의 신학"으로 체계를 세우게 된 것도 역시 교회의 목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연구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1) 바르트(K. Barth)는 교회(敎會)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총(恩寵)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2) 그러므로 기성세대(旣成世代)에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한 기존교리(旣存敎理)를 재고(再考)할 것을 촉구(促求)하였다.

3) 무미건조(無味乾燥)한 교회를,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객관적인 역사(客觀的인 歷史)와 이에 따른 신앙(信仰)으로서의 수납(受納)이 아니라, 실존적인 역사의 의미(實存的 歷史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는데 바르트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바르트 신학(Barthian theology)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역시 그리스도론이므로, 그리스도의 탄생(成肉身), 생애(生涯), 죽음(死亡), 부활(復活), 재림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는 새로운 인간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그의 신학의 관심사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1) 구미(歐美)의 많은 신학자들의 하나님과 인간의 이차원적인 사고와는 달리, 바르트는 이차원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2) 바르트는 인간에 관하여 보다는, 성육(成肉), 생애(生涯), 죽음(死亡)을 거쳐 부활(復活)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인간성(人間性)에 초점(焦点)을 맞춘다.

3) 결국 이와 같은 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의 인본주의로서, 종교는 물론 정치, 사회, 인간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한다.

4)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최대의 소망이라며,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부활은 역사(*Historie*)속에서 일어난 사건(Fact)이 아니고, 초 역사(*Geschichte*) 속에서 일어난 사건(event)으로서 실존주의적 의미(實存主義的 意味)를 갖는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被造物)은 인간의 인간성이 역사 속에서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상한 부활로 인하여 승화(昇華)된 영화(榮華)로운 몸이 아니라, 초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에 실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르트가 역사(*Historie*)와 초 역사(*Geschichte*)로 역사의 개념을 이분화(二分化)시킨 데 기인한 오류(誤謬)이다.

[2] 루돌프 불트만 (Rudolf Bultmann, 1884-1976)

루돌프 불트만(1884-1976)은 1900년 중반에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신학적 영향을 끼친 신약신학자(新約神學者)이다. 당시에 그의 "실존주의 해석학"(Existential hermeneutics)은 성경해석학(hermeneutics)의 일대 파문(波紋)을 일으켰다.

1. 생애 (His Career)

불트만은 1886년 독일 올덴브르그(Oldenburg)에서 출생, 1951년 은퇴할 때까지 말부르그(Marburg)대학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쳤다. 1941년에 "계시와 구속사건"(Offenbarung und Heilsgeschehen)을 썼고, 그 속에 "자연계시의 문제"(Die Frage der nauturlichen Offenbarung)와 "신약성경과 신화"(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라는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이 중에서 후자가 신학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2. 성서해석 방법

1) 성경은 특별한 책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작품을 읽듯이 읽어야 한다. 이유는 특별한 책의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2) 성경(聖經)은 그 책의 배경을 고려하며 읽어 나가면서 점차 그 책의 중심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3) 독자의 어떠한 전제도 배제해야 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물어야 하며 독자의 어떤 선입주견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4) 성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학적 이슈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독자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실존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게 해야 한다. 실존철학에서 인간의 실존적 자기 이해를 문제시하는 것과 같이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 델모어 슈바르츠(Delmore Schwartz, 미국시인)

"실존주의는 아무도 내대신 목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철학이다"

Ex.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자기의 실존철학(existential philosophy)에 있어서 아무도 내 대신 죽을 수가 없다는 주제로 전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5) 인간의 생(生)과 사(死)는 자기결단(自己決斷)에 달려있다.

3. 해석방법의 배경

불트만(Bultmann)의 성서해석(Hermeneutics)의 배경은 철저한 실존주의 해석방법(Existential hermeneutical interpretation)을 채용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自由主義 神學者)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주의 신학자(現代主義 神學者)들이 이 방법을 통용하고 있다.

(1) 實存主義的 觀念은 "의식개념"(consciousness)에 관련되어 있어서, 모든 인식행위는 항상 의식적인 것이며, 주관적인 의식에서 객관적인 상호관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과 객관이 교차하는 접촉점(point of contact)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實存主義的인 "時間槪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존주의에 있어서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나, 카렌다적(Calendar)인 시간개념이 아니라 실존적 의미를 갖는다.

① 실존주의의 過去란, 단순히 지나간 단회성 사건이 아니라, 불확실한 영역으로 결단이 없고,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는 과거, 즉 "죽은 과거"(dead past)라고 한다.

② 그러므로, 실존주의의 과거는 인간이 실생활을 하는 의미 있는 현재에 의해서 구제(救濟)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죽었던 사건이 현재의 삶의 사건에 의하여 실존적으로 구제(實存的 救濟)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③ 그러면, 죽은 과거생활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현재의 생명 있는 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 possibility)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未來"이다. 그러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뿐이요, 필연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간이

미래에 관하여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특색이다.

(3) 불트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적 구원사건(啓示的 救援事件)은 미래적이어서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나타나는 "실존적인 사건"(existential event)이다. "그리스도의 사건"(Christ event) 역시 항상 일어나 인간에게 육박해오는 사건이다.

(4) 불트만의 역사관(歷史觀)은 의식(意識)에 대한 현상학적(現象學的) 이론(理論)과 실존적(實存的)인 시간개념(時間槪念)에 관련되어 있다. 즉 과거의 객관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된 역사적 사건에 그 의미를 둔다.

(5) 基督敎는 역사적인가? 라는 질문에 불트만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그 계시는 하나의 "종말론적 사건"(Eschatological event)이며, 본래 미래적이며, 신앙을 결단케 하는 "가능성"이라 한다.

4. <u>계시관</u> (Revelation)

(1) 성서의 사실적 보도(事實的 報道, real reports)에서가 아니라 그 성경말씀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 비로소 계시(revelation)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계시는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 전달되어 인간의 생활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선포의 결과이다.

(3) 초대 기독교회(初代基督敎會)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가 아니라, 설교(說敎)로서 탄생된 것으로, 성서연구(聖經硏究), 신학(神學)과 설교(說敎)를 통해서 교회가 소생(蘇生)된다.

(4) 계시(revelation)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요, 인간을 위한 거룩한 사건(事件)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

(5) 결국(結局), 계시(啓示)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自體)가 아니라, 선포(宣布)되어진 말씀, 즉 케리그마(*κηρύγμα*)에 있다는 것이다.

5. 해석방법의 적용

불트만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실존주의적 해석방법(existential hermeneutical method)을 사용하여, 신약성경의 역사적 탐구를 부정하므로, 성서는 예수에 대한 과거의 역사에는 무관하고, 예수의 현재적 주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실존주의적 해석원리에 기초하여, 양식사 비평(form-criticism)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성경에서 소위 신화적 사건들(異蹟들)을 재해석에 의하여 무력화시켰고, 성서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의 사건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말았다.

(1) 양식사 비평 (Form-geschichte, Form-criticism)

불트만(Rudolf Bultmann)은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 1883-1947), 슈미트(K. L. Schmidt)와 함께 양식사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래 "양식사"(樣式史)란 말은 디벨리우스의 "복음의 양식사"(Die Form Geschichte Evangelism)의 저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불트만이 그의 저서 "공관복음 전승사"(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에서 이론적으로 발전 시켰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 사실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예수께서 과거의 역사적 존재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의 해석이며, 성경이 선포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성경이 재해석되었을 때에, 그 구속적 사건이 현재생활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란 객관적 사건이나 만남의 사건도 아니요 바로 "만남" 그 자체라고 한다.

1) 聖經은 기록되기 전에 단편적인 구전으로 전해오든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2)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예수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적 기록 속에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배하고 선포한 말씀(케리그마, *κηρύγμα*)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한다.

3) 예수의 메시아에 관한 자의식(自意識, self-consciousness)에 관계없이 초대교회가 그를 메시아로 믿고 주장하기 위하여 부활과 승천 사건들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cf. Paulus, Strauss)

4) 양식사 비평방법의 3단계

① 第一段階: 성경(福音書)의 각 단편들을 분해하는 작업

성경은 과거의 3층 세계관의 관념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복음서도 여러 단편(斷片)의 단위(單位, unit)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진의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 단편들이 입고 있는 비과학적 요소들, 즉 신화적, 이적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비과학적인 신화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 각 단위들을 분해 시켜야 하는데 이 분리작업이 양식사 방법의 제1단계 작업이다.

② 第二段階: 분리한 각 단위들의 분석, 처리하는 작업

복음서의 분리된 각 단위들을 특유한 양식사적(樣式史的) 분석원리(分析原理)에 의하여, 시공간(時空間)에 관한 언급들 (time-space references), 즉 역사적인 요소들을 제거시키고, 그 단위들을 수식(修飾)하고, 첨가(添加)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그 단위들의 원형(原型, original forms)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③ 第三段階: 분석처리, 과학화된 단위들을 연결시키는 작업

분리한 각 단위의 과학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신화적(神化的)인 것들을 제거한 후에, 다시 양식사의 체계(樣式史體係)에 따라 재구성(再構成, reorganization)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양식사 비평방법(樣式史 批評方法)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비과학적(非科學的)인 것들,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童貞女 誕生)과 부활(復活)을 위시하여 모든 이적(異蹟)들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적인 사건(神話的 事件)들로 규정하고,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 작업을 통하여 모두 제거해버림으로 기독교의 평범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2) 비신화화 (非神話化, Demythologization)

불트만은 신약성서 속의 역사적인 사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성서 속에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한다. 요는 역사적 사건들 중에 이적(異蹟)과 같은 많은 부분들이 삼층 세계관 (三層世界觀) 속에서 살았던 당시(Copernicus 이전의 世界觀)의 표현방식 으로서 비과학적인, 신화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과학적 해석을 위하여 비신화화(非神話化) 작업이 필요한데, 이 비신화화 작업을 위하여 종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재해석(再解釋)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신화(神話, Mythos)라는 문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옷을 입고 역사 속에 나타난 복음 속의 들어 있는 케리그마(*κηρύγμα*)의 본질을 설교, 혹은 선포라는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양식사 비평방법(樣式史批評, Formgeschichte)을 통하여 그 신화의 옷을 벗겨야 하는데, 이 신화의 옷을 벗기는 작업을 비신화화(非神話化, Demythologization)작업이라고 한다.

1) 삼층 세계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적 간섭은 당시 신화라는 문학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현대와 같은 과학만능의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케리그마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신화적인 요소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실존적 이해를 위하여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역사(役事)들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유대인들과 노스틱주의(gnosticism), 헬라의 신비적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4) 이 종말론 사건들은 실존적으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의 “가능성”(possibility)으로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건이다.

5) 신화의 옷을 입고 인간역사 속에 나타난 신약의 종말론적 사건들의 케리그마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이 신앙의 거룩한 결단을 내림으로 구원을 통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6) 다시 말하면, 인간이 피상적인 신화적 사건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신화적 사건 배후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message)와 저자들의 종교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7) 그러므로 비신화화 작업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이 신앙의 결단은 실존주의적인 재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3) 실존주의적 해석방법 (實存主義的 解釋方法)

불트만은 알티저(J. J. Altizer)가 그랬듯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덱거(Martin Heidegger)의 영향으로 실존주의 해석방법(實存主義 解釋方法)을 따르고 있다. 하이덱거(Martin Heidegger)는 인간의 존재를 본체론적 구조(ontological structure)로 보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출발점으로 실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어프로치(approach)의 방법으로 신약의 인간관도 세속적, 철학적(實存哲學的)인 견지에서 조명하고 있다. 불교에서 인간을 고통의 존재(苦痛의 存在)에 그 출발점을 둔 것 같이, 하이덱거는 역사 속의 인간을 불안의 존재(不安의 存在)로 본다.

1) 인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영원한 긴장 속에 존재하며, 현재에서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한다.

2) 자연인(自然人)은 자연에 매여서 자기의 개성을 상실하는 반면에, 신앙인은 복음의 선포(케리그마)를 통한 실존적 신앙의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3) "진정한 인간 존재의 삶"(the life of authentic being)은 "자기위주의 삶"(selt-asserting life)이 아니라, "자기헌신의 삶"(the life of self-commitment)을 의미한다.

4) **罪 觀:**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닌 삶"(inauthentic human life)이 죄의 본질이며, 이러한 세상과 육신만을 위한 삶의 결과는 불안(不安, anxiety)으로 연결된다.

5) **救援觀:** 인간 스스로는 "불안"의 상황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사건을 믿음으로서만 "진정한 인간다운 삶"(authentic life)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혜는 복음의 메시지, 즉 케리그마(*κηρύγμα*)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고, 이 케리그마를 인간이 받아 "믿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6) **復活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수직적 차원을 거부하고, 역사주의적, 평면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전락시켰으나, 불트만은 비록 실존주의적인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7) **그러나,** 키엘케고르(Kierkegaard)가 예수의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지 않은 채 실존주의적인 이해를 시도하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有神論的 實存主義)를 주창했다.

그와 반면에 하이데거(Heidegger)는 예수의 역사적 사건들까지 비신화화 시켰는데, 불트만도 예수의 사건을 실존적인 사건 (existential event)으로 이해해서,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사건을 "초 역사"(geschichte) 혹은 "참 역사"(ulgeschichte)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4) 불트만 신학의 문제점

불트만의 오류는 신학,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실존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데 있다. 그리고 선교적,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재해석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세기의 Hegel의 역사주의적 Kant의 윤리신학의 실패를 지적함과 동시에, 양식사 비평방법에 의한 실존주의적 복음의 이해를 통하여, "인간의 순간적 이해와 신앙의 결단"(understanding and making decision at the fleeting point)을 촉구하는 주관주의적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1) 계시의 객관성을 무시한 신학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 의존적 신지식 내지 인간에 관한 문제의 이해가 아니라, 그 출발점을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 실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서, 계시의 객관성을 거부한 결과가 되었다. 계시의 객관성을 부정할 때에, 기독교는 인본주의적 상대주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 기독교의 절대성을 거부하게 된다.

그의 신학에 의하면, 계시란 인간의 실존적인 이해를 통하여 확인될 때만 그 계시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극히 실존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인간 상대성-하나님 절대성이 아니라, 인간 절대성-하나님 상대성의 결과를 낳았다.

2) 역사적 예수와 케리그마적 그리스도를 분리시켰다

불트만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즉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써 역사적인 사건을 무시한 채 케리그마를 찾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비신화화를 통한 양식사비평의 방법으로 케리그마를 찾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의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을 제거한 채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찾아 실존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논리이다.

예수의 역사적 화육사건 없이 세상을 향한 구원사역이 불가능한 것 같이, 예수의 역사적 십자가와 부활사건 없는 부활과 영생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보였던 18,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결론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5) 불트만 신학의 평가

불트만은 성경, 특히 신약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말미암아 성경해석학에 일대 변화를 일으켰으나, 동기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중대한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1) 불트만은 당시 문학에서 신약성서의 이적적인 사건들을 신화로 보았고, 이 신화를 현대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종교적 상징들로 취급하려는 시기에,

신약성서에 나타난 이적의 사건들을 신화로 보고 비신화화 시키려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물론 문학에서와 같이 인간을 인간의 가장 심오한 실존적 상징에로의 연결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적 사건들을 과학적인 역사로 취급하려는 태도에 대한 계시의 실존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2) 불트만은 어떤 의미에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신약성서의 사건들을 신화적인 사건의 부활이라고 비판하여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불트만은 신화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것으로, 복음의 재 선포를 의미한다고 웅변한다. 이 비신화화 과제는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의 공동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3) 그러나 불트만(Rudolf Bultmann)의 양식사비평(formgeschichte)을 통한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 작업은 몇 가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서 신학의 문제가 되고 있다.

(1) 양식사 비평 작업으로 인하여 성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서의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복음의 케리그마(kerygma) 추구를 위한 비신화화 작업은 성서 및 예수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신학의 이해의 어프로치를 인간의 실존에서 출발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존 사색을 외면해버렸다.

(4) 결국 이적들을 신화적 사건으로 취급해버림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었다.

◉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1906-1945)

1. 생애와 신학적 배경 (His Career and Theological Setting)

(1) 1936년 2월 4일 브레스라우(Breslau)에서 출생해서 1945년 4월 9일 플로센뷰르크(Flossrnürg)에서 나치정권에 의해 처형당했다(44세).

(2) 15세 때에 목사가 될 것을 결심, 17세 때에 튜빙겐대학에서 신학을 시작하여, 당시 신학계의 거두들이었던 하르낙(Adolf von Harnack), 제베르그(R. Seeberg), 리츠만(Lietzmann)등을 스승으로 모셨고, 그 중에 하르낙에게 큰 감명을 받았고, 바르트와도 접촉하여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본회퍼의 박사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는 바르트의 영향이 컸다.

(3) 1927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바로세로나 독일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1929년 베를린으로 돌아와 베르린대학 신학부 강사로 임직했다 (행위와 존재, Akt und Sein).

(4) 미국 유니온신학교에서 연구(미국의 교회와 신학), 9개월 만인 1931년 5월 귀국, 히틀러의 나치독재와의 투쟁을 시작했다.

(5) 1933년 10월 영국 런던의 독일교회에 부임했다가 귀국하여 반 나치운동(anti-Nazi movement)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6) 1935년 4월 핀겐바르데 연수원의 지도자로 부임했다가, 1937년부터 히틀러의 "힘의 독재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7) 1943년 3월 13일로 계획된 히틀러 암살기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4월 5일에 독일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1944년 7월 20일 2차 암살기도가 실패한 후 1945년 4월 9일 플로센뷰르그에서 처형되어 이른 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2. 본회퍼의 신학사상 (Bonhoeffer's Theological Thought)

본회퍼는 시국적인 상황(時局的 狀況)에 의하여 신학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본국 독일의 급변하는 정변(政變), 서구와 미국 대륙의 상황들에서의 사상적 결단에 따라 그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신학은 전. 후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1) 전기 신학사상

1943년 4월 5일 히틀러가 주도하는 독일의 나치당에 의해 체포되기 전을 전기, 그 이후를 후기로 본다. 전기에는 주로 칼 바르트의 영향으로 비교적 정통주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의 값진 은혜의 소유자로서의 건전한 교회관을 수립하려했다. 현실적 교회를 개탄하고 교회의 갱신을 촉구했다.

1) 우선 칼 바르트(Barth)의 영향을 받은 초기 박사학위 논문 “성도의 교제”(Sanctorun Communio)에서 교회를 사회학적 대상(社會學的對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는 공동체(Community)로서 그리스도의 현존방식으로 보았다.

2)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弟子)라고 하였다. (cf. The Cost of Discipleship)

3) 그리스도의 은혜는 종교적 위안과 자기도취에 빠지는 값싼 은혜(chief grace)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값진 은혜(costly grace)라고 했다.

4) 현실적인 교회는 값진 은혜는 잃어버리고, 교리와 제도와 의식과 형식적 구조에 노예가 된 값싼 은혜만 전한다고 했다.

(2) 후기 신학사상

그러나 히틀러의 나치독재에 항거하며 독재자 암살을 기도하는 지하당에 가입하여 반 나치운동을 전개하려는 시점으로부터 그의 신학사상은 급진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교회를 사회학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기관으로 규정했던 그가, 이제 교회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전재하고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예수를 "남을 위한 사람"으로서의 모델로 제시하며, 사회와 국가를 위한 적극적, 직접적 사회참여에 나선다. 이러한 신학사상은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으로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이태리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며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음모에 가담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서슴지 않고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보도위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목사로서 그 자동차에 희생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그 친척을 위로하는 것으로서 내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장소에 있다면, 나는 그 자동차를 빼앗고 그 미친 사람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풀리쳐(Joseph Fletcher)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와 "세속세계"(Secular World)의 입장에서 신학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한다. 본회퍼의 신학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 깊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옥중서신에 나타난 사상으로 신학의 한계성을 느낀다.

(3) 신학의 3대 주제

(1) 첫째가 **"세속세계"**(Secular world), 또는 성인의 세계(World come of age)로 현대는 성숙한 "성인"(Man of age)이 사는 세계라,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인간 자신의 성숙한 지혜와 힘으로 살아나가는 시대라고 한다.

(2) 둘째로, **"무종교의 인간"**(Religionless man)의 주제이다. "세속세계"(Secular world)에서는 인간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율주의로 초월주의를 밀어내어 인간의 종교성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계몽주의의 영향이 크다.

(3) 셋째로, **"신이 명한 무신"**(God-commanded godlessness)을 말함으로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철저히 추방시킨다. "인간이 정직하게 되는 길은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etsi deus non dareture)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제들의 내용은 그의 후기 신학사상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의 친구요 제자인 베트게(Bethge)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는 전기 바르트의 영향권의 초절주의 신학사상에서 현세의 세속적 신학사상으로 급선회하고 말았다.

1) **神 觀:** 성숙한 인간에게 神은 필요 없으며, 굳이 필요하다면 저 밖의 높은 곳에서, 삶의 한계상황에서 고통 하는 인간문제를 해결해주는 타계적 신관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신이다.

2) **救援觀:** 본회퍼에 있어서 타계적 구원관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에 오셔서 현세적 인간을 구원하는 현세적 구원관이다.

3) **基督論:** 존재론적 신관(ontological concept of God)에서가 아니라 실용적 그리스도觀(pragmatic Christology)에 중점을 두어, 수직적인 대신관계보다 수평적인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사신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존재와 삶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기독론(基督論) 중심이다(ein neuees Leben im "Dase in-fur-andere" in der Teilnahme am sein Jesu).

4) **教會觀:** 교회의 사명은 개인의 영혼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한 사회구원에 있는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은 “인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세속적 사명(世俗的 使命)에 참여함”으로서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 국,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차원(靈的次元)에서가 아니라, 세속적, 정치적 차원(政治的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5) **復活觀:** 부활의 소망은 신화적 내세적 소망이 아니라, 세상 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歷史的 救援).

3. <u>본회퍼 신학의 비판</u>

(1) 본회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의 바르트 영향의 신학에서 세속적 인본주의 신학사상으로 급선회하고 말았다. 그의 신학을 평가할 때 대체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神 觀:** 엄격한 의미에서 그는 객관적 인격적, 신 존재론보다는 세속적인 무신론을 말하고 있다. 그의 신관을 "신이 명한 무신"(God-commanded godlessness)라고 공공연하게 말함으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신의 불필요성을 말함으로 결과적으로 무신론의 오류에 빠져들었다.

2) **基督論:**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에 참여함과 동시에, 인성에 참여함으로 신. 인간의 중보가 되심보다도, 인간의 도덕적 삶의 모범으로서의 기독론을 확립함으로 고대 교회의 에비온파(Ebionites)와, 알로기파(Alogi), 그리고 동력적 모나키안파(Dynamic Monarchianism)의 오류에 빠진 셈이 되었다.

3) **敎會觀:** 교회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의 한계선이 모호하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와 동일시 할 수 없다(요 17장).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참여는 비성서적이며, 크리스천 개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회참여가 타당한 것이다.

4) **基督敎**의 비종교화 운동(非宗敎化運動)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편재성만을 주장하는 데에 기인한 오해이다.

(2) 본회퍼의 제자 베트게(Bethge)는,

(1) 본회퍼에 관하여, 20년대의 본회퍼는 신학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주제는 교회이다"라고 말했고,

(2) 30년대의 그는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의 주제는 이 세상이다"라고 말했으며,

(3) 40년대의 그는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의 주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

■ 본회퍼의 신학사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물음에 옳은 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고금을 통하여 신학자들의 고민거리이다.

(1) 기독교의 비종교적 해석이 과연 가능한지? (종교적 문제)

(2) 히틀러 살해음모에 직접적 참여는 정당한지? (정치적 문제)
(3) 본회퍼는 과연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지? (신앙의 문제)

◉ **위르겐 몰트만 (Juürgen Moltmann, 1926-)**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러 꽃을 피워 왔던 자연주의 인본주의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칼 바르트(Karl Barth)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지고, 바르트의 초절주의로 영화를 누려왔던 신 정통주의에 이어 불트만의 인간실존에서 출발하는 실존주의 해석학에도 흥미를 잃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던 중, 역사의 지평선 위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종말론적 (Eschatological)인 관점에서, 위르겐 몰트만(Jügen Moltmann)에 의해 소망을 주체로 하는 "소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이 탄생했다.

이와 같은 지평선 위에 서서, 미래의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를 목표로 하는 미래신학의 신학자들 중에는 몰트만(Jügen Moltmann)을 비롯하여, 판넨베르그 (Wolfhart Pannenberg)와 데야르 드 샤르뎅(Teilhard de Chardin)이 있다.

(1) 몰트만의 생애와 저서 (His Career and Works)

1) 生涯: 1926년에 출생하여 1955년에 신학박사가 되었고, 1956년 브레멘에서 강사로 재직하다가, 1963년 본 대학에서 조교수, 그 이후에는 튜빙겐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2) 著書: "소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 1967)
"종교, 혁명과 미래"(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2) 신학사상 (Theological thoughts)

1) **接近:** 무신론 철학자(無神論 哲學者)요 마르크그주의자(idealistic Marxist)인 블로흐(Ernst Bloch)의 "소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의 영향을 받아, 그의 신학사상이 형성되고 정립되었다.
신정통주의(Neo-orthodoxy)가 역사적 사건(과거나 미래)을 무시하고 신학의 실존적 이해(神學의 實存的 理解)에 치중한 반면에, 몰트만은 미래의 차원에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역사의 선상에서 미래의 창을 여는 종말론적 해석의 원리(終末論的 解釋原理)를 사용한다. (cf. 초종말론, 실존주의)

2) **神 觀:** 인간과 세계 "안"이나(in) "밖"에(out)에 존재하는 신(神)이 아니라, 미래를 그 존재양식(存在樣式)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의 신"(God of hope)으로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그의 "미래의 약속"(未來의 約束)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이다. 구약(舊約)의 하나님은 약속과 소망의 신(神)이다.

3) **人罪論:** 블로흐의 인간이 근본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며, 현상에 대한 스스로 만족하거나 체념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원리에 따라, 몰트만은 절망이 불신에서 왔기 때문에 죄라고 규정했다. 원죄(原罪)인 인간의 교만 반대편에 절망과 체념과 우울 등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죄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다.

4) **基督論:**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가 누구냐(who he is), 그가 무엇을 말했느냐(what he did say)등 존재론이나 목적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이 될 것이냐(what he will be),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what can expect from him)의 미래의 소망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소망이다(골 1:27)

5) **十字架의 意義:** 십자가는 그 밑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의 표지(sign)요, 지상에서 현재에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이다. 십자가는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현재적 사건으로 소망의 신학(所望의 神學)이 말하는 사회적 관심과 방향(社會的 關心과 方向)을 제시하는바, 이것이 십자가 신학(十字架 神學)이다.

6) **復活觀:**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의 주제인 미래는 종말론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역사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 부활의 시작(始作)으로 역사적 가능성(歷史의 可能性)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 보다 종말론적인 성격이 지배적이다.

7) **敎會觀:** 교회는 소망의 회중(the congregation of hope)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무리로서, 지상의 압제 당하는 자들을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방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몰트만의 교회의 개념들은

① 民衆을 爲한 敎會...일종의 종교적 상품(宗敎的 商品)을 진열해놓고 파는 시장(市場, marketplace)에 불과하다.

② 民衆의 敎會...민중이 주체(主體)가 되는 교회로 가난하고, 눌리고, 소외당한 자들이 모인 교회로, 신약의 예수님이 만나고, 보살피시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교회이다.

③ 참 敎會...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마 25:40)과, 믿는 자의 형제들이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현존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community)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④ 傳統敎會...제도적 교회(制度的敎會)로 섬김을 받는 구조적 교회 (構造的敎會)이다. 개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宣布)하여 교인을 교화(敎化)하는 데 머물고 있다.

⑤ 참 宣敎...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행동으로서 인간 전체의 삶을 예수의 삶에 부합시킨다.

⑥ 참 信仰...관념적 신앙(觀念 信仰)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다.

8) **終末論:** 몰트만은 구원사학파(Heilgeschichte school)나 판넨베르그(Pannenberg)에 있어서와 같이 가치론적 역사주의(價値論的 歷史主義, axiological historicism)이나 목적론적 역사주의(目的論的 歷史主義, teleological historicism)에 빠지지 않았다.

기독교 종말론의 미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토피아 (*Utopia*)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근거하고 있어서, 미래의 "소망"이라는 말이 "말씀"(*λογός*)의 형식이 아니라 종말론적 "약속"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9) **神學槪念:** 몰트만의 신학적 주요개념(Moltmann's theological key concepts)은 "약속"(covenant)과 "소망" (hope)이다.

① **"소망"의 개념**

(1)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며(ontological question), 무엇을 했느냐(missionary question in the past)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냐(what he will be in the future: the question to the hope in the future)의 소망에 관심이 있다.

(2) 이 소망은 현실을 무시한 소망이 아니라 항상 현실과 대립상태에 있고, 현재 경험적 실제에 모순되는 것으로, 경험으로부터 결과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소망의 약속의 세계로 바꾸자는 의도로 현실경험과 대립과 긴장상태가 이어진다.

(3) 현실과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며, 이 갈등과 긴장은 고난과 죽음의 경험으로 미래의 창을 열기 위한 현실관계에서 대립을 형성하게 된다.

② **"약속"의 개념**

(1) 구약 히브리 역사에서 "약속"의 개념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구약의 역사관(舊約의 歷史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根本的인 要素)가 된다.

(2) "약속"의 개념은 과거나 현재에 경험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은 실재(實在)가 도래(到來)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복음의 소망의 종말론적 케리그마(κηρύγμα)를 의미한다. 이는 실존주의적 방식과 반대로 현존재 자체에서 역사적 사건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하여 현존재의 소망을 성취될 미래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다.

(3) 즉 실재에 의하여 약속의 말씀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현재의 실재를 측정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미래" 중심 사고방식이다.

(4) 약속이란 현재 존재하거나 일어나고 있는 실재에 대한 묘사(descriptive words)가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되고, 그 결과가 보장되는 역동적인 말이다.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선포와 약속된 구속과의 사이에 긴장상태를 유지함으로 미래에로 창을 열게 된다.

예를 들어, 구약의 여호와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그들의 신인 여호와를 바꾸지 않은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더 새로운 소망을 위한 것이다.

(5) 역사적 경험의 성취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여분(overplus)을 위하여 그 약속 가운데서도 초월해버리시는 "무한성" (inexhaustibility)을 가지고 계시므로, 전적으로 자기에게 일치되는 실재를 찾기까지는 그 자신을 어떤 역사적 실재에 속박시킬 수가 없으신 분이다.

10) 계시(啓示)와 역사(歷史)의 이해 (현대신학적 이해)

바르트(Karl Barth)가 계시를 모든 존재의 주(主)로서 "초월적 자아계시"(초월적 자아계시, transcendental self-revelation)로 이해하고, 불트만(R. Bultmann)이 하나님의 계시를 실존적으로 "확실한 자아의 노출"(disclosure of authentic selfhood)로 이해하는 바, 이러한 자아계시는 신론적이든 인간론적이든 초월적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구원사 학파를 중심으로 시도되어, 역사 속에서 계시는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 소망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즉 초역사의 의미를 채용함으로서, 인간역사(문화적, 과학적 발전사)를 떨쳐버렸기 때문에, 세속사(secular history)는 하나님의 전 역사적(全歷史的) 섭리에 무용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구원사 학파들과는 달리, 역사를 하나님의 간접적 자아계시로 보는 학파, 즉 판넨베르그(W. Pannenberg), 렌 톨프(R. Rendtorf), 윌헨스(U. Wichens), 그리고 티 렌톨프(T. Rendtorf) 등이 있다. 이들은 유대의 묵시문학적 전통(默示文學的 傳統)을 살려서 역사를 공식화(公式化)하려는 경향이 있다.

■ 판넨베르그(W. Pannenberg)의 역사와 종말관

(1) 나사렛 예수의 부활(復活)에서 역사의 종말(歷史의 終末)이 예비적으로 잠정적(暫定的)으로 성취(成就)되었다 (Gogarten, Bultmann= existential/Martin Kahler=supernatural faith without historicity)

(2)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역사의 종말이 선취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예수의 운명을 반복하는 공식을 밟을 뿐, 부활하신 예수도 더 이상의 미래를 가질 수 없다. (teleological/probability, possibility)

(3) **부활의 의의**(復活의 意義)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의(十字架의 意義)가 무시된 결과를 초래했다.

1) 몰트만(Moltmann)은 **십자가**는 현대에 대한 혁명(革命)으로 신학자(神學者)는 세계(世界)나 역사(歷史)가 인간 본성(人間本性) 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데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신적 변화(神的變化)로서의 변화(transform)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해석학의 참 의미는 인간의 실존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바, 전자를 “실존적 해석학”(existential hermeneutics)이라 하며, 후자를 “정치적 해석학”(political hermeneutics)라 한다.

3) 성서의 역사적 사실(歷史的 證據)에 대한 해석의 키(key)는 “성서의 미래”(future of Scripture)로, 모든 약속들이 미래에 대해 열려진 것처럼 성서도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다.

4) 이 성서의 미래가 사명(mission) 안에서 파악되고 인식되며, 변화하는 역사의 가능성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5)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질문에서, 또는 존재하는 세계와의 조화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의미에 의하여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종말론적 사명의 가능성을 만듦으로 그의 실존과 신성이 증명하는 것이다 (not through natural theology but in the midst of the movement of mission).

6) 인간이 누구냐?(who is man?), 인간이 무엇이냐?(what is man?), 내가 누구냐?(who am I?)등의 질문들도 하나님의 사명(divine mission)에 부딪쳤을 때에 비로소 일어나고 응답되는 것이다. (not existential question but contextual missiological question)

Ex. Moses: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고 비로소

"내가 누구관데...."(출 3:11)

Ex. Isaiah: 하나님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사명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5)

Ex. Jeremiah: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명 받고
"슬프도소이다...보소서 나는 아이라...."(렘 1:6)

7) 인간이 과거(過去)에 어떤 인간이었던가(what he was), 현재(現在)에 어떤 존재인가(what he really is)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未來)에 어떤 인간이 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자세가 소망의 신학의 자세(所望의 神學의 姿勢)이다.

(3) 몰트만 신학의 특징과 비판

바르트(Karl Barth)의 신정통주의(神正統主義)가 과거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eternal present/now), 순간적 현재(the fleeting point of present/now)에서 실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이, 몰트만(Moltmann)의 소망의 신학은 약속된 미래(約束된 未來)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한다.

(1) 종말론 중심의 해석학 (終末論 中心의 解釋學)

정통주의, 개혁주의 종말론(Reformed eschatology) 입장은 역사적 사건에 뿌리박은 그리스도의 탄생(誕生)과 생애(生涯), 십자가(十字架) 와 부활(復活)이라는 역사적 사건(historical facts)에 근거한 역사적 구원(historical salvation)을 영원한 구원(eternal salvation)에로 연결 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再臨)으로 궁극적(窮極的) 성취를 얻게 된다.

그러나 몰트만의 종말론은 과거의 구속적 실재(the redemptive reality of the past)의 의미를 미래의 가능성(可能性, possibility) 속에 희석(稀釋, dilution)시켜버린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 속에서 부활을 추정함으로 뿌리 없는 부활의 원리를 제시하고,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원인이 없는, 부활이라는 결과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한 역사적 부활이 미래의 부활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전 15:23). 몰트만은 미래적 종말론을 모든 신학의 원리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종말론은 전혀 의미가 없다.

(2) 수평적 구속론 (水平的 救贖論, Horizontal Redemption)

몰트만의 신학은 수직적 관계성(垂直的 關係性, vertical relationship)을 무시한 채 역사의 지평선상에서, 그것도 과거를 무시한 채 미래의 선상에서 모든 신학적 이슈들(issues)을 풀어나가려 한다.

구속론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무시함으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보다도, 불순종의 죄로 인한 "절망"(絶望) 을 죄로 규정함으로 근본적인 원죄관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수직적 속죄관을 거부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화해론(和解論, reconciliation)을 강조함으로 수평적 구원관으로 대체시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歷史的)를 통한 하나님과의 최우선적 화해를 무시하고, 역사 선상(歷史線上)에서의 계급투쟁(階級鬪爭)에서 발생하는 억압당하는 자의 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 "현실구원"(現實救援, Realistic Salvation)인 수평적 구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궁극적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접근방법(eschatological approach)에 의하여 미래를 유일한 실재의 가능성(possibility of reality)으로 전제하고 과거의 역사적 발생사건(happenings)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적 의미(redemptive meaning)를 외면해버렸다.

(3) 교회론의 문제점 (教會論의 問題点, Ecclesiological Problems)

몰트만은 교회를 구원받은 선민(救援받은 選民)의 모임으로 보는 본질론(本質論)을 무시하고 사회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道具, instrumentation)나 기구(機構, organization)로 생각하는 방편론(方便論)을 중요시한다. (the congregational hope)

교회의 성례관 역시 미래에 실현될 소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를 선포하며 참여하는 의미로, 사전의 예행하는 교회의 사명(mission)으로서 예언적 의미가 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역사의 지평선상에 놓고 종말론적으로 전시해보려고 하여 마르크스 사상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cf. Bloch).

(4) 몰트만 신학의 공헌 (Moltmann 神學의 貢獻)

모든 특색 있는 다른 신학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몰트만 신학(Moltmann's theology)도 많은 문제점들(問題点, problems)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의 신학은 당대에 어필(appeal)할 수 있는 공헌(공헌, contribution)을 함께 남겨주었다. 1964년 "소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이 출판됨으로 당시 신학계에 또 한 번의 돌풍을 몰고 왔고, "소망의 신학 논쟁"(所望의 神學論爭, Diskussion uber die Theologie der Hoffnung)을 통하여 수많은 서평들(書評, book-reviews)이 쏟아져 나왔다.

어떤 학자는 "소망의 신학"을 1919년 칼 바르트(K. Barth)의 "로마서 강해"(로마서 講解)에 비교하기까지 하여 그의 신학을 높이 평가했다.

바르트가 "말씀의 신학"을 통하여 강력한 수직차원의 신학(垂直次元 神學)을 수립한데 반하여, 몰트만은 "소망의 신학"을 통하여 수평차원의 신학(水平次元 神學)을 수립하였다.

(1) <u>수평차원의 종말론 (水平次元의 終末論)</u>

종말론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대체로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① 첫째가, 전통적인 입장으로 역사의 끝인 "마지막 날"(the Last Day), 역사의 종말인 최후의 날로, 세상 끝에 관심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해라는 면에서 볼 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

② 둘째가, 불트만의 실존주의 종말론으로 영원한 현재의 실존적 의미를 부여한 종말론이다.

③ 셋째로,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신비주의 종말론이다.

④ 넷째로, 미래의 약속과 소망의 차원에서 실존주의적 종말론(existential eschatology)과 신비주의적 종말론(mystical eschatology)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시도한 몰트만의 “다이나믹 종말론”(dynamic eschatology)이다.

⑤ 몰트만은 17.8세기의 신비주의의 꾸준한 출몰과 19세기의 역사주의 해석학(historical interpretation)에 이어서 20세기 실존주의 해석학(existential interpretation)으로 꽃을 피운 실존주의 종말론의 신학조류를 완전히 역류하여 역사적 해석과 실존적 이해로부터 미래적 역사의 이해에로 혁신을 일으켰다.

(2) 교회 사명의 재인식 (教會使命의 再認識)

경건주의, 신비주의가 수직적, 영적 관계에만 집착하다 기독교의 수평적 관계의 소홀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내지 회피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에 몰트만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혁명을 주창함으로 실존주의와 경건주의에 강력한 도전을 했다.

바른 역사적 의미(the meaning of history)는 교회의 임무, 사명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통해서만 미래의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존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안일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사명의 가능성(終末論的 使命의 可能性)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기관임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과 세계의 조화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질문이 교회의 사명운동(the movement of church mission)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응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출애굽에 대한 모세(Moses)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曠野教會)의 사명과 선지자 이사야(Isaiah)와 예레미야 (Jeremiah)의 사명을 강조하여, 교회는 현실적 각성(現實的 覺醒)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교회가 소홀히 하기 쉬운 현실 세상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先知者的 覺醒,

prophetic mission)을 일깨워 준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한 것이다.

– 현대신학 제1권 끝 –

Cavin Theological University (U.S.A.)
Dr. Paul B. Jang (Professor)
(Th.M, D.Min, Th.D)